

『靈樞·脈度』의 ‘舌能知五味’와 ‘口能知五穀’에 대한 문헌적 고찰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金振鎬*

A Literature Study on 'A tongue can detect five basic tastes' and 'A mouth can perceive the five cereals' in *Youngchu·Macdo*

Kim, Jin-Ho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Medical History, Sangji University

Objective : I would define the differences of sentences that 'A tongue can detect five basic tastes' and 'A mouth can perceive the five cereals' in *Youngchu·Macdo*(靈樞·脈度).

Methods : 1. I refer to literatures for the sentences in *Youngchu·Macdo*
2. I look into the symptoms which may be caused by heart and pancreas troubles, respectively.

Result : Human being can not detect a specific taste on his heart trouble. That is, acid, bitter, sweet, hot, and saltiness can be all one. Human being may lose his appetite on his pancreas trouble. Even though the viscera and the tongue are connected to on-meridians, the function of a tongue is managed and controlled by a heart. Such a tongue perceives five basic tastes.

Conclusion : A healthy tongue appreciates five basic tastes clearly and a healthy mouth may stimulate his appetite.

Key Words : appetite, taste, tongue, the five cereals.

I. 서론

『靈樞·脈度』에 보면 經脈의 길이에 대한 내용 외에도 五臟과 上七竅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肺氣通於鼻, 肺和則鼻能知

臭香矣; 心氣通於舌, 心和則舌能知五味矣; 肝氣通於目, 肝和則目能辨五色矣; 脾氣通於口, 脾和則口能知五穀矣; 腎氣通於耳, 腎和則耳能聞五音矣.”¹⁾라고 하였다. 여기서 肺氣·肝氣·腎氣와 관계된 문장은 해석상에 큰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心氣·脾氣와 관계된 “心氣通於舌하니 心和則舌能知五味矣라. 脾氣通於口

* 교신저자 : 김진호,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Tel : 010-6277-8315, E-mail : kjh95184@hanmail.net
접수일(2012년 4월 26일), 수정일(2012년 5월 15일),
게재확정일(2012년 5월 17일)

1)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靈樞譯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190.

하니 脾和則口能知五穀矣라.”라는 문장을 살펴보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心氣는 혀로 통하니 心이 和하면 혀가 五味를 알 수 있다. 脾氣는 입으로 통하니 脾가 和하면 입이 五穀을 알 수 있다.”정도로 해석이 되겠다. 여기서 “舌能知五味矣.”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간다. 혀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酸·苦·甘·辛·鹹의 다섯 가지 맛을 맛보고 구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口能知五穀矣.”라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 혀의 경우처럼 입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다섯 가지 곡식의 맛을 맛보고 구별할 수 있다는 뜻일까? 五果도 있고 五畜도 있고 五菜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五穀일까? 아니면 위의 해석과 의미가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가? ‘五味’에 대한 논문도 많고 ‘五穀’과 관계된 논문도 있으며 『靈樞·脈度』에 대한 논문²⁾도 있지만 위에 제시한 의문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논문들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舌能知五味’와 ‘口能知五穀’에 대해 문헌을 통해 고찰해 보고 아울러 心과 脾가 不和하였을 때 과연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가를 역으로 추적하여 위에 제시한 『靈樞·脈度』의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內經』에서 ‘五味’와 ‘五穀’이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본다.
2. 『靈樞·脈度』의 문장인 “心氣通於舌하니 心和則舌能知五味矣라. 脾氣通於口하니 脾和則口能知五穀矣라.”에 대한 국내 번역서들의 번역과 현대 중국서적의 譯들을 살펴본다.
- 3.上記 문장과 관련된 諸家들의 註 가운데 본 논문의 취지에 적합한 부분들을 발췌하여 그 내용들을 살펴본다.
- 4.上記의 문장을 역으로 보면 心과 脾가 不和하였을 때 舌不能知五味하고 口不能知五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心·脾가 不和할 때 과연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문헌들을 통하여

2) 윤주현, 임상섭, 금경수. 靈樞·脈度篇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진흥학회지. 1999. 3(1).

역으로 추적하여 살펴보고,上記 문장의 해석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알아보겠다.

III. 본론

1. 『內經』에서 쓰이는 ‘五味’와 ‘五穀’의 뜻

1) ‘五味’의 뜻³⁾

- ① 酸·甘·苦·辛·鹹五味.
- ② 泛指飲食物.
- ③ 指水穀飲食中的營養成分⁴⁾.
- ④ 『靈樞』篇名.

2) ‘五穀’의 뜻⁵⁾

- ① 粳米·麻仁·大豆·小麥·黃黍五種穀物.
- ② 泛指糧食作物.
- ③ 指飲食物.
- ④ 指飲食物之味.

이상 사전적 의미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五穀이 ‘음식물의 맛’을 뜻하여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음식물의 맛’ 즉 ‘음식 맛’은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감각을 뜻한다.

2. “心氣通於舌하니 心和則舌能知五味矣라. 脾氣通於口하니 脾和則口能知五穀矣라.”에 대한 국내 번역서들의 번역과 현대 중국서적의 譯

1) 『善乎靈樞·上』

- ① 心氣는 혀와 통하는데 心氣가 和하면 혀가 능히 五味를 알 수 있고⁶⁾.

3) 張登本, 武長春 主編. 內經詞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31-32.

4) ‘份’이라 되어있는 것을 中韓辭典에 의거하여 ‘分’으로 고침.

5) 張登本, 武長春 主編. 內經詞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35.

6) 김선호 編著. 善乎靈樞·上. 주민출판사. 2003. p223.

- ② 脾氣는 입과 통하니 脾氣가 和하면 입이 능히 五穀을 알 수 있고7).

2) 『황제영추경』

- ① 심기(心氣)가 혀(舌)에 통합니다. 심장이 조화로우면 혀는 5미(味)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8).
- ② 비기(脾氣)는 입에 통합니다. 비장(脾)이 조화로우면 입은 5곡(五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9).

3) 『황제내경영추상』

- ① 심기(心氣)는 혀와 통하는 것이며 심(心)이 화평해지면 혀가 능히 다섯 가지 맛을 분별하여 알아내는 것입니다10).
- ② 비기(脾氣)는 입과 통하는 것이며 비(脾)가 화평해지면 입이 능히 다섯 가지 곡식의 맛을 분별하여 아는 것입니다11).

4) 『黃帝內經·靈樞(全)』

- ① 心氣는 혀(舌)에 통하니 心이 조화로우면 혀(舌)는 五味를 알 수 있으며12).
- ② 脾氣는 입(口)에 통하니 脾가 조화로우면 입(口)은 五穀의 맛을 알 수 있으며13).

5) 『황제내경黃帝內經·하·영추靈樞』

- ① 심기(心氣)는 혀하고 통한다. 심장의 기가 정상이면 맛을 잘 구별한다14).
- ② 비기(脾氣)는 입하고 통한다. 비장의 기가

정상이면 식욕이 좋다15).

6) 『黃帝內經靈樞譯解』

- ① 心氣通於舌頭 若心臟的功能正常 舌頭就能辨別五味16).(心氣는 혀에 통하니 만약 心臟의 기능이 정상이라면 혀는 곧 五味를 변별할 수 있다.)
- ② 脾氣通於口竅 若脾臟的功能正常 口就能辨別食物的滋味17).(脾氣는 口竅에 통하니 만약 脾臟의 기능이 정상이라면 입은 곧 食物의 맛을 변별할 수 있다.)

7)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 ① 心氣通於舌 心氣和 舌就能辨別五味18).(心氣는 혀에 통하니 心氣가 和하면 혀는 곧 五味를 변별할 수 있다.)
- ② 脾氣通於口竅 脾氣和 口就能辨別五穀之香19).(脾氣는 口竅에 통하니 脾氣가 和하면 입은 곧 五穀의 香을 변별할 수 있다.)

8) 『靈樞經直譯』

- ① 心氣通舌 心氣平和 舌能辨別五味20).(心氣는 혀에 통하니 心氣가 화평하면 혀는 五味를 변별할 수 있다.)
- ② 脾氣通口 脾氣平和 口能辨別五穀的滋味21).(脾氣는 입에 통하니 脾氣가 화평하면 입은 五穀의 맛을 변별할 수 있다.)

7) 김선호 編著. 善乎靈樞·上. 주민출판사. 2003. p224.
8) 최창록 역해. 황제영추경. 서울. 푸른사상사. 2000. p.259.
9) 최창록 역해. 황제영추경. 서울. 푸른사상사. 2000. p.259.
10) 최형주 해역. 황제내경영추상. 서울. 자유문고. 2004. p323.
11) 최형주 해역. 황제내경영추상. 서울. 자유문고. 2004. p323.
12) 金達鎬 譯. 黃帝內經·靈樞(全). 서울. 醫聖堂. 2002. p.488.
13) 金達鎬 譯. 黃帝內經·靈樞(全). 서울. 醫聖堂. 2002. p.488.
14) 이케다 마사카즈 지음, 이정환 옮김. 황제내경黃帝內經·하·영추靈樞. 서울. 청홍. 1999. p.136.

15) 이케다 마사카즈 지음, 이정환 옮김. 황제내경黃帝內經·하·영추靈樞. 서울. 청홍. 1999. p.136.
16)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靈樞譯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190.
17)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靈樞譯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190.
18) 郭靄春 編著.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서울. 醫聖堂. 1993. p.173.
19) 郭靄春 編著.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서울. 醫聖堂. 1993. p.173.
20) 陣忠仁 編著. 靈樞經直譯.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1. p.123.
21) 陣忠仁 編著. 靈樞經直譯.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1. p.123.

9) 『靈樞經白話解』

- ① 心氣通于舌 心臟的功能正常 舌就能辨別五味²²⁾. (心氣는 혀에 통하니 心臟의 기능이 정상이면 혀는 곧 五味를 변별할 수 있다.)
- ② 脾氣通于口竅 脾臟的功能正常 口就能辨別飲食物的滋味²³⁾. (脾氣는 口竅에 통하니 脾臟의 기능이 정상이면 口는 곧 飲食物의 맛을 변별할 수 있다.)

10) 『黃帝內經靈樞譯釋』

- ① 心氣通于舌 心氣調和 則舌能辨別五味²⁴⁾. (心氣는 혀에 통하니 心氣가 조화로우면 혀는 五味를 변별할 수 있다.)
- ② 脾氣通于口 脾氣調和 服食五穀就有滋味²⁵⁾. (脾氣는 口에 통하니 脾氣가 조화로우면 五穀을 먹음에 곧 맛있어 한다.)

11) 『靈樞經校釋·上冊』

- ① 心氣外通于舌 心臟的功能正常 舌就能辨別五味²⁶⁾. (心氣는 밖으로 혀에 통하니 心臟의 기능이 정상이면 혀는 곧 五味를 변별할 수 있다.)
- ② 脾氣外通于口 脾臟的功能正常 口就能辨別飲食物的味²⁷⁾. (脾氣는 밖으로 口에 통하니 脾臟의 기능이 정상이면 口는 곧 飲食物의 맛을 변별할 수 있다.)

이상 국내서적의 번역들과 중국서적의 譯들을 살펴본바 대부분의 해석이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눈에 띄는 해석들이 보이니 5)의

22) 陳璧琉, 鄭卓人 合編. 靈樞經白話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189.
23) 陳璧琉, 鄭卓人 合編. 靈樞經白話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189.
24) 南京中醫學院中醫系 編著. 黃帝內經靈樞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159.
25) 南京中醫學院中醫系 編著. 黃帝內經靈樞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159.
26)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347.
27)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347.

②에 나타난 ‘식욕이 좋다’는 표현과 7)의 ②에 나타난 ‘辨別五穀之香’, 10)의 ②에 나타난 ‘服食五穀就有滋味’ 등이다. 이 중에서 5)의 ②와 10)의 ②에 나타난 표현은 五穀의 직접적인 맛보다는 ‘입맛·식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겠다.

3. 諸家들의 註

舌爲心之竅니 必心和而後舌能知五味也니라. 口爲脾之竅니 必脾和而後口能知五穀也라. 口知五穀은 卽舌知五味니 故分之雖有二나 而此共爲一竅니라²⁸⁾. (혀는 心의 竅이니 반드시 心이 조화로운 이후에야 혀가 五味를 알 수 있다. 口는 脾의 竅이니 반드시 脾가 조화로운 이후에야 口가 五穀을 알 수 있다. 口가 五穀을 아는 것은 곧 혀가 五味를 아는 것이니, 故로 혀와 口를 나누어서 비록 2개가 있으나 이는 모두 一竅이다.) 諸家들의 註²⁹⁾를 살펴 본 바 본 논문의 취지와 有關한 註는 上記한 馬蒔의 註정도 인데, 이마저도 ‘舌能知五味’와 ‘口能知五穀’에 중점을 둔 註라고 보긴 어렵고 口와 舌이 一竅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註로 보인다.

4. 心과 脾가 不和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

1) 『內經』에 나타난 증상

① 心이 不和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

『素問·脈要精微論篇』에서는 “心脈搏堅而長 當病舌卷不能言 其連而散者 當消環自己³⁰⁾(心脈이 搏하고 堅하면서 長하면 當당 혀가 말려 말을 못하고 脈이 連하고 散한 자는 當당 邪氣가 사그라들어 精氣가 돌면 저절로 나을 것이다³¹⁾.)”라고 하여 心脈의 虛實에 따른 舌의 變化關係를 나타내었다.

『靈樞·五閱五使』에서는 “心病者는 舌捲短하고 靨赤

28) 馬蒔 著. 黃帝內經靈樞註證發微.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157.
29) 楊上善, 王冰, 滑壽, 張介賓, 張志聰, 黃元御 등의 註를 말한다.
30)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滙粹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245.
31) 박찬국 역주.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경기. 집문당. 2005. p.319.

하다.”³²⁾(心이 병들면 혀가 말려 짧아지고 광대뼈가 붉게 된다.)라고 하였다.

『內經』을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心과 五味가 관계된 증상은 찾아 볼 수 없었고, 다만 五味를 맛 볼 수 있는 舌과 관계된 증상들은 上記내용처럼 몇몇 곳에서 살펴 볼 수 있었다.

② 脾가 不和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

『素問·藏氣法時論篇』에서 “脾病者는 身重하고 善飢肉痿하며 足不收行하고 善瘦하며 脚下痛하고 虛則腹滿하며 腸鳴飧泄하고 食不化하니이다.”³³⁾(脾가 병들면 …… 쉽게 배가 고파지며 …… 음식이 소화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脈解』에서는 “所謂惡聞食臭者는 胃無氣라 故惡聞食臭也이니이다.”³⁴⁾(이른바 음식냄새를 맡기 싫어 한다는 것은 胃氣가 없는지라 때문에 음식냄새를 맡기 싫어합니다.)라고 하였다.

『氣交變大論篇』에서는 “歲土太過하면 雨濕流行하여 …… 飮發中滿하고 食減하니이다.”³⁵⁾(歲의 土氣가太過하면 雨와 濕이 流行하여 …… 飮은 中滿을 유발시키고 음식이 줄어들입니다.)라고 하였고, 계속하여 “歲土不及하면 …… 氣客於脾하며 穀穀乃減하고 民食少失味하니이다.”³⁶⁾(歲의 土氣가不及하게 되면 …… 邪氣가 脾에 침입하며 穀穀의 産出이 줄고 백성들의 음식량이 줄며 입맛을 잃습니다.)라고 하였다.

『五常政大論篇』에서는 “厥陰司天, 風氣下臨, 脾氣上從, …… 食減口爽, …… .”이라 하였는데, 이 문장에 대해 楊維傑은 厥陰風木이 司天하였을 때 脾氣가 먼저 克制를 받아 食少·口不辨味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語譯하였다³⁷⁾.

『靈樞·經脈』에서 脾足太陰之脈의 是動病은 “食則嘔하고 胃脘痛하며 腹脹하고 善噫하니이다.”³⁸⁾(음식을 먹으면 嘔하고 胃脘이 아프며 腹脹하고 잘 트림합니다.)이고 所生病은 “食不下하고 煩心하며 心下急痛하니이다.”³⁹⁾(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煩心하며 心下가 갑자기 아픕니다.)라고 하여 소화기 계통의 문제와 연관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났다.

『五邪』에서는 “邪在脾胃하면 則病肌肉痛이라. 陽氣有餘하고 陰氣不足하면 則熱中善飢하니이다.”⁴⁰⁾(邪氣가 脾胃에 있으면 肌肉이 병들어 아픕니다. 陽氣가 有餘하고 陰氣가 不足하면 熱中으로 쉽게 배가 고파집니다.)라고 하였다.

『本藏』에서는 “脾偏傾이면 則善滿善脹也이니이다.”⁴¹⁾(脾가 치우치고 기울면 脹滿이 잘 생깁니다.)라고 하여 『經脈』에서와 마찬가지로 소화기 계통의 문제와 연관된 증상들이 나타났다.

『大惑論』에서는 “黃帝曰 人之善飢而不嗜食者는 何氣使然이니잇고? 岐伯曰 精氣并於脾하고 熱氣留於胃한대 胃熱則消穀하니 穀消故善飢하니이다. 胃氣逆上하면 則胃脘塞⁴²⁾하니 故不嗜食也이니이다.”⁴³⁾(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배가 자주 고파지는데 음식을 먹고자 하지 않는 것은 어떤 氣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胃가 熱하면 소화가 되고 소화가 되는 고로 자주 배고파집니다. …… 胃脘이 막히니 때문에 음식을 먹고자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內經』을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脾(胃)가 不和한 경우에 우선 소화기 관련 증상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특히 善飢·食不化·惡聞食臭·食減·食少·

32)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靈樞經譯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301.

33)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201.

34)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滙粹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704.

35)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532.

36)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537.

37)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564.

38)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靈樞經譯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115.

39)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靈樞經譯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115.

40)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靈樞經譯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210.

41)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靈樞經譯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353.

42) ‘寒’으로 되어있는 것을 甲乙經에 의거하여 고쳤다.

43)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靈樞經譯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605.

口不辨味·不嗜食 등과 같이 이른바 ‘입맛·식욕’과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었다.

2) 기타 서적⁴⁴⁾에 나타난 증상

① 心이 不和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

『醫學入門』에서 “熱甚, 一臟偏勝則口味失常. 心熱, 口苦生瘡, 涼膈散, 黃連阿膠丸. 肝熱, 口酸而苦, 小柴胡湯加龍膽草, 青皮, 甘草, 甚者, 當歸龍薈丸. 謀慮不決, 膽虛口苦, 人參, 遠志, 茯神, 甘草, 爲君, 柴胡, 龍膽草, 爲使, 甚者, 腎氣丸. 脾熱, 口甘或臭, 瀉黃散, 四順清涼飲, 甘露飲, 三黃丸. 肺熱口辛, 甘桔湯, 瀉白散. 腎熱口鹹, 滋腎丸.”⁴⁵⁾(熱이甚하여 한臟이 치우치게勝하면 평소의 口味를 잃는다. 心이 熱하면 입맛이 쓰고 …… 肝이 熱하면 입맛이 시고 쓰니 …… 膽이 虛하여 입맛이 쓰면 …… 脾가 熱하면 입맛이 달거나 …… 肺가 熱하면 입맛이 매우니 …… 腎이 熱하여 입맛이 짜면 滋腎丸을 쓴다.)이라고 하였다.

五味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증상은 『醫學入門』이 총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口味失常·口苦·口酸·口甘·口辛·口鹹 등의 증상을 살펴 볼 수 있었고, 이러한 증상들은 대체적으로 熱을 동반하여 나타났으며 인용문의 처음(熱甚)부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膽虛口苦’의 경우 ‘熱’이라는 글자가 없고 虛證으로 인식하여 熱이 아니라 생각하기 쉬우나 인용문의 처음이 ‘熱甚’으로 시작하고 使藥으로 柴胡·龍膽草가 사용되며 『古今醫統大全』에 나온 脈⁴⁶⁾으로 살펴보면 熱을 끼고 있음이 분명하다.

② 脾가 不和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

『丹溪心法』에서 “傷食惡食者, 胸中有物, 宜導痰補脾, 二陳湯加白朮·山查 川芎 蒼朮服之. 憂抑傷脾, 不思

飲食.”⁴⁷⁾(食傷으로 음식을 싫어하는 것은 가슴속에 物이 있는 것으로 導痰補脾가 마땅하니 二陳湯에 白朮·山查·川芎·蒼朮을 加하여 복용한다. 근심하고 억울하며 脾를 傷하면 飲食생각이 나지 않는다.)이라고 하였고, 또 “長夏濕土 客邪大旺 加蒼朮·白朮·澤瀉 上下分消其濕熱之氣 濕熱大勝 主食不消 故食減 不知穀味 則加麩以消之”⁴⁸⁾(長夏에 濕土가 …… 故로 음식이 줄고 穀味를 알지 못하면 麩를 加하여 消導시킨다.)라고 하였다.

『醫壘元戎』의 處方 易簡平胃散에서는 “治脾胃不和 不思飲食 心腹脇肋 膨脹刺痛 口苦無味 胸滿短氣 嘔穢惡心 噯氣 吞酸 面色痿黃 肌體瘦弱 怠惰嗜臥 體重腹痛 常多自利 或發霍亂 及五噎八痞 膈氣及反胃 並宜治之”⁴⁹⁾(脾胃가 不和한 것을 다스린다. 음식 생각이 없고 …… 口가 쓰고 입맛이 없으며 …… 아울러 마땅히 치료한다.)라고 하였고, 處方 小已寒丸(一名 強中丸)에서는 “治脾胃積冷 中寒洞泄 倦怠 不思飲食 進食止自汗 厚腸胃”⁵⁰⁾(脾胃의 積冷을 다스린다. …… 음식 생각이 없고 …… 腸胃를 두텁게 해준다.)라고 하였다.

『蘭室秘藏』의 處方 當歸芍藥湯에서는 “治婦人 經脈漏下不止 其色鮮紅 時值七月處暑之間 先因勞役 脾胃虛弱 氣短氣逆 自汗不止 身熱悶亂 惡見飲食 非惟不入 亦不思食 沈懶困倦 四肢無力 大便時泄 後再因心氣不足 經脈再下不止 惟覺氣下脫 其元氣逆上 全無 惟覺心腹中氣下行 氣短 少不能言 是無力以言 非懶語也 此藥主之”⁵¹⁾(…… 脾胃가 虛弱하여 …… 飲食보기를 싫어하니 다만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먹을 생각을 않고 …… 이 藥이 다스린다.)라고 하였고, 處方 潤腸湯에 “治脾胃中伏火 大便秘澀 或乾燥 閉塞不通 全不思食 及風結血秘 皆令閉塞也 以潤燥 和血

44) ‘口能知五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인 만큼 脾氣不和와 관련된 자료가 풍부할 것으로 생각되는 東垣十種醫書와 일부 서적 및 綜合醫書들을 살펴보았다.

45) 李梴 編著. 編註醫學入門·外集卷二.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46-47.

46) 徐春甫 編集. 古今醫統大全·下.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279. “洪數, 心熱口苦, 右寸脈浮數, 肺熱口辛. 左關弦數而虛, 膽虛口苦甚. 左關洪而實, 肝熱口酸. 右關沉實, 脾胃有熱口甘.”

47) 朱震亨 撰. 丹溪醫集·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300.

48) 朱震亨 撰. 丹溪醫集·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346.

49) 李杲 外 編著.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759.

50) 李杲 外 編著.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891.

51) 李杲 外 編著.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207.

疎風 自然通利矣.”⁵²⁾(脾胃의 伏火를 다스린다. 전혀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 자연히 대변이 통하여 나가게 된다.)라고 하였다.

『脾胃論』의 處方 升陽除濕湯에서는 “治脾胃虛弱 不思飲食 腸鳴腹痛 泄瀉無度 小便黃 四肢困弱”⁵³⁾(脾胃가 虛弱하여 약하여 飲食생각을 하지 않고 장이 끊고 배가 아프며 수없이 설사하고 소변이 누렇게四肢가 괴롭고 약한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였고, 處方 異功散에서는 “治脾胃虛冷 腹鳴腹痛 自利 不思飲食”⁵⁴⁾(脾胃가 虛冷하여 배가 끊고 배가 아프며 自利하고 飲食생각이 없는 것을 다스린다.)이라고 하였으며, 處方 加減平胃散에서는 “治脾胃不和 不思飲食 心腹脇肋 脹滿刺痛 口苦無味 胸滿短氣 嘔噦惡心 噎氣吞酸 面色萎黃 肌體瘦弱 怠惰嗜臥 體重節痛 常多自利 或發霍亂 及五噎八痞 膈氣 反胃”⁵⁵⁾(脾胃가 不和하여 飲食생각을 하지 않고 …… 입이 쓰고 입맛이 없으며 …… 反胃 등을 다스린다.)라고 하였고 이어지는 가감법에 “如脾胃困弱 不思飲食 加 黃芪 人蔘”⁵⁶⁾(脾胃가 괴롭고 약하여 飲食생각을 하지 않을 경우엔 黃芪·人蔘을 가한다.)이라 하였다. 또한 “夫脾胃者 行胃津液 磨胃中之穀 主五味也 胃既傷 則飲食不化 口不知味 四肢倦困 心腹痞滿 兀兀欲吐 而惡食 或爲飧泄 或爲腸澼 此胃傷脾亦傷 明矣”⁵⁷⁾(무릇 脾는 …… 五味를 主한다. 胃가 이미 傷하면 飲食이 소화되지 아니하고 입은 맛을 알지 못하며 …… 이는 胃가 傷하면 脾도 또한 傷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라 하였고, “夫脾胃虛弱 必上焦之氣不足 遇夏天氣熱盛 損傷元氣 怠惰嗜臥 四肢不收 精神不足 兩脚痿軟 遇早晚寒厥 日高之後 陽氣將旺 復熱如火 乃陰陽氣血俱不足 故或熱厥而陰虛 或寒厥而氣虛 口不知味 目中

溜火 而視物慌慌 無所見 小便頻數 大便難而結秘 胃脘當心而痛 兩脇痛 或急縮 臍下周圍 如繩束之急 甚則如刀刺 腹難舒伸 胸中閉塞 時顯嘔噦 或有痰嗽 口沃白沫 舌強 腰背胛眼皆痛 頭痛時作食不下 或食入即飽 全不思食 自汗尤甚 若陰氣覆在皮毛之上 皆天氣之熱助本病也 乃庚大腸 辛肺金 爲熱所乘而作 當先助元氣 理治庚辛之不足 黃耆人蔘湯 主之”⁵⁸⁾(무릇 脾胃가 虛弱하면 …… 또는 寒厥하여 氣가 虛해지면 입이 맛을 알지 못하며 …… 또는 음식을 먹으면 곧 배가 불러지고 전혀 음식 생각이 없으며 …… 黃耆人蔘湯이 다스린다.)라고 하였다.

『醫宗金鑑』의 處方 四神丸에서는 “治脾胃雙虛 子後作瀉 不思食 不化食”⁵⁹⁾(脾胃가 모두 虛하여 子時 이후에 설사하고 음식 먹을 생각을 않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다스린다.)이라고 하였다.

『景岳全書』의 處方 養胃進食丸에서는 “治脾胃虛弱 心腹脹滿 面色痿黃 肌肉消瘦 怠惰嗜臥 或不思食 常服滋養脾胃 進飲食 消痰涎 辟風寒濕冷邪氣.”⁶⁰⁾(脾胃가 虛弱하여 …… 또는 음식 먹을 생각을 않는 것을 다스린다. ……)라고 하였다.

『東醫寶鑑』에는 “脾胃俱虛 則不能食而瘦 與食則少食 不與 則不思食 飢飽不知”⁶¹⁾(脾胃가 모두 虛하면 …… 음식을 주지 않으면 음식 먹을 생각을 않고 배가 부르고 고픈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고 “脾病困睡泄瀉不思飲食”⁶²⁾(脾가 病들면 괴롭고 졸리며 설사하고 飲食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處方 新法半夏湯에는 “治脾胃有冷痰 嘔逆惡心不思飲食”⁶³⁾(脾胃에 冷이 있어 痰을 토하고 속이 미식거리며 飲食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다스린다.)이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不思飲食 宜平胃散

52) 李杲 外 編著.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217.

53) 李杲 外 編著.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24.

54) 李杲 外 編著.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26.

55) 李杲 外 編著.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33.

56) 李杲 外 編著.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33.

57) 李杲 外 編著.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26.

58) 李杲 外 編著.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94-95.

59) 吳謙, 劉裕鐸 等纂. 醫宗金鑑.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p.780-711.

60) 張介賓 編著. 景岳全書·下.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514.

61)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편역. 原本 東醫寶鑑<新增版>. 서울. 南山堂. 2004. p.434.

62)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편역. 原本 東醫寶鑑<新增版>. 서울. 南山堂. 2004. p.637.

63)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편역. 原本 東醫寶鑑<新增版>. 서울. 南山堂. 2004. p.129.

養胃進食丸(方見五藏) 寬中進食丸 生胃丹 參苓白朮丸(方見下) 啓脾丸 二麴元 香砂六君子湯 香砂養胃湯 人參開胃湯 安胃散 穀神湯⁶⁴⁾이라고 하여 不思飲食에 사용되는 처방들이 脾胃와 직접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內傷脾胃則不思食不嗜食'⁶⁵⁾이라는 條目도 볼 수 있다.

여러 서적을 통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脾(胃)가 不和한 경우에 여러 소화기 증상들을 비롯하여 惡食·不思飲食·不知穀味·口苦無味·不思食·口不知味·不嗜食 등과 같이 이른바 '입맛·식욕'과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중에는 五味의 분별을 뜻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또한 '입맛·식욕'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IV. 고찰 및 결론⁶⁶⁾

이상 『靈樞·脈度』의 '舌能知五味'와 '口能知五穀'에 대해 문헌적으로 살펴보았다.

'五味'와 '五穀'이 『內經』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內經詞典』을 통해 살펴보면 五味는 '酸·甘·苦·辛·鹹五味'의 뜻이 있고 五穀은 '指飲食物之味'의 뜻이 있다. 그렇다면 兩者間의 차이는 무엇인가? 前者는 5가지 맛이고 後者는 복합적인 하나의 맛인가? 이러한 의문들이 다음으로 살펴본 국내서적의 번역들과 중국서적의 譯들에서도 계속하여 나타난다. 다만 눈여겨 볼만한 해석들이 있으니 '口能知五穀'을 '식욕이 좋다'로 보거나 '服食五穀就有滋味'로 보는 견해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맛있다고 느껴려면 먹는 대상인 음식 자체도 맛있어야 하겠

지만 이와 함께 먹는 주체인 몸도 건강하고 和平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조건하에서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며, 이런 상태를 우리는 '입맛이 좋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정신적·육체적 상황에 따라 같은 음식을 맛있게 느낄 수 있는 반면 평범한 음식이라도 몸이 건강하고 和平하여 입맛이 좋다면 혹은 식욕이 좋다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服食五穀就有滋味'라고 譯한 경우도 '식욕이 좋다'로 해석한 경우와 같은 뜻을 취하고 있다고 보인다.

心이 不和한 경우에 나타나는 五味와 관계된 증상들을 『內經』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오미와 관련하여 『醫學入門』에서는 口味失常·口苦·口酸·口甘·口辛·口鹹 등의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장부가 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로 설명하고 있으며, 『古今醫統大全』에서도 熱을 띤 脈狀으로 설명하고 있다. 『陰陽應相大論篇』에 "心主舌"⁶⁷⁾이라 하였고 「五閱五使」에 "舌者, 心之官也"⁶⁸⁾라 하였는데, 그러한 心이 熱을 받게 되면 舌을 정상적으로 主하지 못하여 『醫學入門』에서 말한 것처럼 치우친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치우친 맛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 5가지 맛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脾(胃)가 不和한 경우에 『內經』에서는 善飢·食不化·惡聞食臭·食減·食少·口不辨味·不嗜食 등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났으며, 기타 서적에서는 惡食·不思飲食·不知穀味·口苦無味·不思食·口不知味·不嗜食 등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났다. 모두 '입맛·식욕'과 관련된 증상들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黃帝內經研究大成』에서는 不思飲食과 食慾減退의 증상을 치료함에 脾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니⁶⁹⁾ 脾와 '입맛·식욕'과의 관계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醫學入門』에서 "心主舌 脾主唇口 然 心脾二氣 恒相通也."⁷⁰⁾라 하였고 馬蒞가 "口知五穀은 卽舌知五味니

64)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편역. 原本 東醫寶鑑<新增版>. 서울. 南山堂. 2004. p.435.

65)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편역. 原本 東醫寶鑑<新增版>. 서울. 南山堂. 2004. p.434.

66) 『善乎靈樞』의 p.224-225에서 김선호는 編者注를 통해 '口能知五穀'에 대해 '식욕'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 근거로 치아, 舌, 前食(前菜)을 예로 들었다. 치아의 미각뿐만 아니라 입천장의 촉각도 '입맛'에 영향을 끼친다는 견해를 표하였다. 본 논문의 論據와는 차이가 있지만 趣旨에 승하는 부분이 있어 여기에 밝혀둔다.

67)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p.50-51.

68)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靈樞譯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300.

69)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中. 北京. 北京出版社. 1999. p. 995.

70) 李梴 編著. 編註醫學入門·外集卷二.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46.

故分之雖有二나 而此共爲一竅니라.”⁷¹⁾라고 한 것처럼 맛을 느끼는데 있어서心和脾의 기능을 선명하게 나누기는 어렵다. 그러나 『東醫寶鑑』에서는 “舌爲心之官 主嘗五味 以布五藏焉 心之本脈 繫於舌根 脾之絡脈 繫於舌傍 肝脉循陰器 絡於舌本 腎之津液 出於舌端 分布五藏 心實主之.”⁷²⁾라고 말하여 舌이 다른 臟들과도 經絡으로 연계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 舌에 주체적인 책임을 갖는 것이 心임을 밝히고 있고, 그러한 舌이 五味를 맛보는 것이다.

以上的 내용을 종합하여 『靈樞·脈度』에서 언급한 “心氣通於舌하니 心和則舌能知五味矣라. 脾氣通於口 하니 脾和則口能知五穀矣라.”를 해석하자면 “心氣는 혀로 통하니 心이 和하면 혀가 五味를 구분하여 맛 볼 수 있다. 脾氣는 입으로 통하니 脾가 和하면 정상적인 식욕으로 五穀을 먹을 수 있다.”정도로 意譯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舌能知五味’는 혀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여 5가지 맛을 잘 구별한다는 의미이고, ‘口能知五穀’은 입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여 입맛이 좋고 식욕이 당긴다는 의미로 구분지어 볼 수 있겠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內經』에 나오는 ‘五穀’의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 ‘식욕·입맛’이라는 뜻을 일정부분 고려해야 될 것 같다.

V. 참고문헌

<논문>

1. 윤주현, 엄상섭, 금경수. 靈樞·脈度篇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진단학회지. 1999. 3(1).

<단행본>

1.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靈樞譯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115, 190, 210, 300, 301, 353, 605.
2.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大星

71) 馬蒔 著. 黃帝內經靈樞注証發微.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157.

72)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편역. 原本 東醫寶鑑<新增版>. 서울. 南山堂. 2004. p.241.

- 文化社. 1990. p.201, 532, 537, 564. pp.50-51.
3.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滙粹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245, 704.
4. 김선호 編著. 善乎靈樞·上. 주민출판사. 2003. p.223, 224.
5. 최형주 해역. 황제내경영추·상. 서울. 자유문고. 2004. p.323.
6. 최창록 역해. 황제영추경. 서울. 푸른사상사. 2000. p.259.
7. 郭霽春 編著.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서울. 醫聖堂. 1993. p.173.
8. 馬蒔 著. 黃帝內經靈樞注証發微.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157.
9. 吳謙, 劉裕鐸 等纂. 醫宗金鑑.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pp.780-711.
10. 張介賓 編著. 景岳全書·下.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514.
11. 李杲 外 編著.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24, 126, 133, 207, 217, 759, 891. pp.94-95.
12. 朱震亨 撰. 丹溪醫集·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300, 346.
13. 박찬국 역주.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경기. 집문당. 2005. p.319.
14.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편역. 原本 東醫寶鑑<新增版>. 서울. 南山堂. 2004. p.129, 241, 434, 435, 637.
15. 李梴 編著. 編註醫學入門·外集卷二.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p.46-47.
16. 徐春甫 編集. 古今醫統大全·下. 서울. 아울로스 출판사. 1994. p.279.
17. 金達鎬 편역. 黃帝內經·靈樞(全). 서울. 醫聖堂. 2002. p.488.
18. 陣忠仁 編著. 靈樞經直譯.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1. p.123.
19. 이케다 마사카즈 지음, 이정환 옮김. 황제내경 黃帝內經·하·영추靈樞. 서울. 청흥. 1999. p.136.

20. 陳璧琉, 鄭卓人 合編. 靈樞經白話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189.
21. 南京中醫學院中醫系 編著. 黃帝內經靈樞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159.
22.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347.
23.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中. 北京. 北京出版社. 1999. p.995.
24. 張登本, 武長春 主編. 內經詞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35. pp.31-32.